

《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대표 여러분!

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만행사실이 우리 민족과 아세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된 때로부터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우리 북과 남의 여성대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여성대표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 때로부터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종군위안부》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와 토론회들에 여러번 참가한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해방 50돐이사 곧 일제의 패망 50년이 되는 해에 《종군위안부》문제 아세아련대회의가 소집될 때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에 참가하는 회수가 늘어갈수록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종군위안부》문제를 가지고 회의들 거듭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데 대하여 안타까움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있는 일본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한 분노를 감할 수 없습니다.

인류력사의 갈피마다에는 크고작은 선생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있고 그때마다 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반인륜적 범죄사실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있지만 구일본군이 20여만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비롯하여 아세아의 여러 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그러한 범죄행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제에 의하여 감행된 《종군위안부》만행은 그 범죄의 성격과 가혹성, 기간과 규모, 그것이 미친 후과로 볼 때 보통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전대미문의 만고대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제국들에 의하여 감행된 범죄행위들이 거의나 청산된 오늘에 와서 까지 일제가 저지른 《종군위안부》범죄가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제3차 <종군위안부> 문제 아세아련대회의》가 소집되고 회의에서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안》을 왜 반대하는가, 《종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기본의성으로 심

하고 토론하는것은 매우 의외였고 시기적절한것으로 된다고
인성하면서 본 토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늦출수 없
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안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군위안부》문제들 해결하는것은 조선민족과 아세이
여러 나라 인민들과 여성의 존엄을 되찾고 회복하는 문제
이며 《중군위안부》생존자들의 가슴에 시려있는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금년은 인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계는 지금 올해를 인류사의 안 시기를 총화
하고 새 출발하는 해로 만들려 하고있습니다.

지나온 30년대, 40년대 일제에 의하여 서질러진
《중군위안부》문제는 이 해를 넘기지 말고 광성하게 해결
되어야 합니다.

《중군위안부》문제들 공침하게 원시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수난자로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서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똑똑히 결산하는것
은 치욕의 파기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며 정의들 지키
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것이기도 합니다.

더우기 일부 세력이 과거에 서지른 범죄행위의 새워
회피하고 인종하게는 그것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청산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범죄보다 더한
범죄를 새봄새 수동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에서 우리는 《중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늦추시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중군위안부》로 불러왔던 생존자들이 지
로 볼 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굶지 말아야
하며 여기에서 어떠한 양보나 주저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중
군위안부》생존자들은 70~80고령으로서 인생말년을 보내고있
는 사람들이며 더구나 정춘시집에 인제에게 당한 학대로
하여 육체시으로는나 정신적으로 이미신에 폐인이 되었거나

분진출입이나 겨우 하는 상기적인 명약자들입니다. 그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종군위안부》문제는 반드시 피해당사자이며 역사의 증견자인 그들이 살아있을 때 꼭바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저설로 해결될수 없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역사적사실까지 선면 부정하면서 전면 피하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있는 일본당국에 스스로 올바른 과거성산을 기대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조선민족과 아세아 여러 인민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 문제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사임을 어떻게 벌러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제의 과거죄영을 계속 진민적으로 폭로단죄하며 피해를 당한 아세아의 모든 나라 여성들과 인민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나서도록 하는것입니다.

《종군위안부》문제는 뱃뱃 《위안부》생존사나 유가족들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아세아 여러 나라의 리익과 손익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의 북과 남, 그리고 아세아 나라 인민들속에는 자기가 당한 수치와 모멸감때문에 피눈물나는 과거를 숨기고있는 《종군위안부》생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시기 일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종군위안부》강제연행과 《위안소》관리에 참가하고서도 사기의 뭇뭇치 못한 과거를 세상천지에 밝히지 못하는 일본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고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일제의 《종군위안부》범죄행위의 진상을 계속 파헤치고 역사외심판에 제시하는 활동을 더 과감하게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하여 과거를 숨기고있는 《종군위안부》생존자들이

(4)

대단하게 일제의 과거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도록 하고 모든 나라 인민들이 《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대중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와 아세아 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이 전시죄행을 회피하며 합리화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제동을 시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는것입니다.

전시에 시민지나라 녀성들을 강제로 연행, 합치하여 《종군위안부》로 전락시키는것을 국가정책으로 고안해낸 당사자도, 또 이런 비인도적인 민족멸살행위들 직접 집행한 자들도 다름아닌 일본침략자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범한 범죄행위의 선모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본당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것을 역사와 인류앞에 스스로 자백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대신 온갖 술책을 다하여 그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피하고있습니다.

아세아 여러 나라 녀성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며 보상하지 않고서는 더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사면판방에서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일본정부를 상대로 항의요청투쟁, 시범운동 등 여러가지 투쟁을 벌리는 한편 일제의 전시만행들 목로하는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출판물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끊임없이 조직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이전 《종군위안부》들과 그 관계자들을 일본정부당국에 보내어 단판투쟁, 항의통성투쟁을 벌리는것은 일본반동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될것입니다.

그리고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 비롯하여 국제기구들에 일제의 과거죄행을 제소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나가도록 하는 사업도 계속 활발히 전개해야 할것입니다.

당면하여 모든 유관국들이 일본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이른바 《민간기급안》의 기만성을 폭로배척하고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벌려나가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지해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지지파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당국은 아세아 나라들과 체결한 병무적협정에 의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당국은 일본당국자들과 같이 쭈뼛 면서 그 무슨 《협정》을 걸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요구를 포기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그에 대하여 입을 봉함으로써 일본당국이 더 오만하게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이른바 《한일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군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제기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그때에는 보상문제가 상정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은 배상이 아니라 《재산청구권》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몇분의 돈을 받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41년간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보상을 설득짓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민족의 존엄조차 귀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않겠다》느니, 이전 《종군위안부》들에게 시들이 기금을 제공하겠다느니 하고있으니 참으로 이것은 민족앞에 2중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종군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회피하는 일본당국을 도와주고있으며 결국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앞장서서 방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상애하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신심으로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일제의 과거죄행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중요한것은 북과 남의 《종군위안부》 문제관련 단체들이, 나아가서 아세아 여성들과 단체들이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하는것입니다.

투쟁의 위력은 단결에 있습니다.

아세아 여러 나라 여성들과 여성단체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일제의 과거성산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투쟁으로 지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본정부당국이 지난날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충분한 보상을 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도로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에는 일본당국의 《민간기금안》을 짓부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나라 여성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공통된 하나의 목표로 지향시키고 그 투쟁을 한단계 더 높여 끌어올리기 위하여 공동의 투쟁조직을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투쟁조직을 《〈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세아연대위원회》라고 명명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연대위원회는 《종군위안부》문제에 관련있는 모든 나라의 관련조직 대표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종군위안부》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아세아나라 대표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외에 능성적으로 호응해나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회와 같이 일체의 《종군위안부》문제를 옮겨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앞길에는 여전히 거대한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며 때지 않아 《종군위안부》문제는 해결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북반부여성들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생전외 뜻을 받들어 《종군위안부》문제를 우리 민족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제3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세아연대회의》가 조선의 해방 50년이 되는 올해안에 《종군위안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는데 응당한 기여를 하게 되도록 나 함께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